

저작권 수입 경쟁이 성장의 과실 유출시킨다

무분별한 번역물 수입, 소모적인 저작권 경쟁 지양해야



사진은 지난 4월 열린 볼로냐 국제 어린이·청소년 도서전의 모습.

얼마 전 볼로냐 국제 어린이·청소년 도서전이 막을 내렸다. 하지만 해마다 거듭되는 저작권 입도선매 소식은 기형적으로 성장한 한국 어린이책 출판의 현주소를 돌아보게 한다. 도서전마다 되풀이되는 저작권 경쟁에서도 알 수 있듯 어린이책 출판계의 가장 큰 논란거리는 무분별한 번역물 수입이다. 과열된 저작권 수입이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번역물 수입이 특정국가에 몰리고, 지나치게 유명 수상작에 치우쳐 있다는 데 있다.

외적 성장에 비해 내부적 역량 못 갖춰 최근 몇 년 사이 어린이책 시장은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이런 외적인 성장을 반영하듯 2~3년 전부터는 국제 도서전에 참가하는 출판사들도 많아졌다. 올해 볼로냐 도서전만 해도 지난해까지는 재미마주 홀로 지켰던 한국 부스가 사계절, 길벗, 교원 등 여섯 곳으로 늘었다. 볼로냐 도서전을 다녀온 한 출판관계자는 “예년에 비해 저작권 계약체결에 좀더 신중해져 그 자리에서 계약하는 일은 드물었다. 단행본의 중요성을 인식한 듯 전집류 계약도 줄었고, 한 출판사는 출발하기 전에 이미 10여건의 계약을 상담하고 오기도 했다”고 전한다.

하지만 이런 일부 출판사들의 선전에도 전시장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동양인은 단연 그룹별로 저작권 헌팅에 나선 한국인들이었다는 소식은 씁쓸한 여운을 남긴다. 한 출판에이전시 대표는 “우리 출판사들이 관심을 보이는 책은 너무나 천편일률적인 것들이다”고 말한다. 도서전에 참가한 출판사 관계자나 출판에이전시들이 대부분 유럽, 영미 출판사들의 출판물에만 애공정세를 쏟을 뿐 제3세계 출판물에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린이책 출판사들이 이처럼 번역서에 매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짧은 시간 안에 기형적으로 몸을 불린 어린이책 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들 수 있다. 국내 창작물 시장을 체계적으로 키우기도 전에 너무나 쉽게 뛰어들어 시장이 과열된 것. 그러다 보니 공룡처럼 비대해진 시장에 걸맞는 ‘상품구색’을 갖추기에 급급했고, 급기야 매대를 채우기 위해 부족한 물량을 번역물로 채우기 시작했다. 내부적 역량을 키우기 전에 시장이 먼저 커버린 것이다.

지나치게 해외 유명 수상작에 의존하는 것도 문제다. 어린이도서연구회 이성실씨는 “외국의 유명상 수상작들은 주로 실험적인 작품들을 높이 평가한다. 그런 만큼 우리 아이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책

들도 많다. 출판은 본질적으로 자기 생각을 담는 그릇인데, 우리 아이들이 철저히 빌려온 책을 보고 자란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재미마주 이호백 대표는 “이제 유럽쪽도 그림책 작가들이 상업적인 기획물로 선회하는 조짐을 보인다. 또한 유명상 수상작들도 작품성보다 대중적 선호도에 부응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런 지적에도 해외 유명 수상작들은 거의 대부분 출간된 상태다. 1938년부터 영예도서를 선정한 칼데콧상의 경우 1939년부터 2001년 영예도서까지 총 58종이 소개됐다. 뉴베리상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1990년 수상작까지 모두 20여권이 출간됐다.

소모적인 저작권 경쟁에 따른 폐해도 속출해 소모적인 저작권 경쟁에 따른 폐해도 속출한다. 출판에이전시 북마크코리아 이병서 대표는 “국내 출판사들이 외국 책을 번역출판하는 경우 대략 판매가의 5~9%의 로열티를 지불한다. 어린이책의 경우 대략 6~8%선에서 로열티가 결정되는데, 이를 저작권료로 환산하면 대략 1,200~1,500달러 정도다. 하지만 문제는 저작권 계약을 맺을 때 수출국이 선인세나 선불금을 요구한다는 데 있다. 이럴 경우 번역물의 매출이 이미 지불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 당연히 초과분을 지불하지만, 판매가 아무리 저조하다 해도 이미 지급한 선인세는 돌려받을 수 없다”고 설명한다. 재미마주 이호백 대표는 “무분별한 번역물 수입으로 출판이 대표적인 소비산업이 돼가는 추세”라고 덧붙인다.

어린이책 시장이 양적인 변화에 걸맞게 질적인 성장을 이끌지 못한 데는 국내 작가 발굴을 등한시한 점도 빼놓을 수 없다. 국내 창작물을 만들자니 검증받은 작가발굴도 어렵고 제작과정 또한 오래 걸려 쉽고 안전한 외국의 그림책으로 눈을 돌린다. 작가를 키울 의지도 없는 출판사들이 조급한 마음에 졸속으로 외국 저작권을 사오는 것이다. 또 한가지 문제는 외국 그림책들이 대부분 동물그림책에 몰려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감성을 발달시키는 디자인 요소가 강조된 입체북 등 정작 도서전에서 주목받는 책들은 규격외 판형, 제책과 제작비 문제 때문에 국내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외면당하는 실정이다. 이제 어린이책은 단순한 상품이기에 앞서 어린이 문화를 이끄는 핵심적인 인프라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때다. —박옥순기자